

담양 폐가전제품 무상 방문수거 운영

담양군이 배출방법이 어려워 가정에 장기간 방치·보관 중인 폐가전제품의 무상 방문수거를 시작하고 홍보에 나섰다고 7일 밝혔다.

폐가전제품 무상 방문수거 사업은 재활용 확대와 국민의 불편 해소를 통해 국정과제인 자원순환사회 전환 촉진을 위한 기반 마련을 위해 시작됐다.

폐가전제품 배출 시 온라인(www.15990903.or.kr) 또는 콜센터(1599-0903) 등 사전예약 시스템을 통해 배출예약을 하면 수거 및 운반 전답반(환경부 한국전자제품자원순환공제조합)에서 정해진 날짜에 방

문 수거해간다.

수거품목은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TV, 전자레인지 등 중·대형 전자제품이며 폐가구, 전기장판류, 의료기기 등 및 고정 설치된 제품은 미적거 시 수거 불가하다.

군 관계자는 “무상으로 직접 방문하고 수거해 폐가전제품의 불법적인 처리를 사전에 차단하고 온실가스 감축효과와 배출수수료 절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면서 “자원의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밝혔다.

/담양=조승재 기자

장흥 생활권 녹지대 등 관수작업 ‘총력’

자연재난 종합대책 수립… 호우·폭염 선제적 대응

장흥군은 가뭄 피해를 막기 위해 텁진강과 소공원, 주요 도로변에 식재된 수목과 초화류 등에 대해 긴급 관수작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관수작업에는 산불진화차량 등 8대와 푸른숲 경관관리단 8명, 텁진강 치킴이팀 2명이 투입됐다.

투입된 인원들은 수목 및 초화류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관수 작업을 실시하고 있다.

텅진강 향기숲공원, 30리길, 국도 18호선, 국도 23호선, 산단로, 가로화단, 경관숲 등 최근 2년 이내 식재된 수목과 초화류에 대해 지속적인 관리를 실시할 계획이다.

오병찬 산림휴양과장은 “지역 가로수와 텁진강 30리길 및 향기숲공원 등에 대해 가뭄이 해소될 때까지 수목관리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고 말했다.

/장흥=임민기 기자

나주 빛가람호수공원서 ‘버스킹 공연’

오늘 개막공연… 7월까지 두 달간 매주 1회씩

나주혁신도시 빛가람호수공원에서 매주 한 차례 여름밤을 아름다운 음악으로 물들일 길거리 공연(버스킹)이 펼쳐진다.

나주 빛가람동 주민자치회는 올해 마을 주민총회 사업 일환으로 마련한 ‘빛가람 버스킹’을 6~7월 두 달간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버스킹은 7월 말까지 매주 1회씩 이어지며, 오후 7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빛가람호수공원 야외공연장을 찾으면 함께 공연을 즐길 수 있다.

첫 개막 공연은 오는 8일 오후 성대하게 막을 올린다.

리틀엔젤스 합창을 시작으로 빛나 누리음악단의 ‘어린이 BTS’, 우쿨렐레, 전문버스커 유투, 한걸후 해금, 이승호 대금, 고우리 성악, 팝페라 가수 김아람, 밸러드 가수 신현영 등이 출연해 아름다운 노래와 선율을 들려준다.

최길주 나주시 빛가람동 주민자치회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나주 빛가람동 시민과 혁신도시 이전기간 임직원, 소상공인들이 빛가람 버스킹 공연을 통해 힐링의 시간을 가져 보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빛가람 버스킹 사업 추진위’는 버스킹에 함께 할 아마추어 버스커를 수시 모집한다.

노래·국악·성악·팝페라·댄스·퍼포먼스 등 장르에 상관없이 함께 놀고 즐기는 축제의장을 만들어 줄 버스커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빛가람 버스킹’ 참여 신청과 관련 문의는 빛가람동 주민자치회(061-333-3632) 또는 버스킹 사업 추진위원회(010-7234-0588)로 하면 된다.

/나주=서철훈 기자

장성 ‘100원 행복택시’ 더 넓게 더 많이 달린다

교통불편 주민들 ‘발’ 역할… 다음달부터 9개 읍·면 52개 마을 지원

장성군이 ‘100원 행복택시’ 대상 마을을 대폭 확대한다고 7일 밝혔다. 군은 행복택시 전용 카드도 지급해 주민들의 이용 편의성을 한층 높일 방침이다.

‘100원 행복택시’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운 주민들이 100원만 내면 면소재지까지 택시로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차액은 군에서 부담한다.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일조하고 있다는 평가다.

현재는 마을회관에서 버스정류장



까지 800m 이상 떨어져 있는 지역에서도 이용하고 있으나, 장성군은 오는 7월부터 100원 행복택시 운영 기준을 완화한다. 마을회관~버스정류장

간 거리 기준을 600m로 줄여, 대상 지역을 9개 읍·면 52개 마을로 늘릴 계획이다.

월별로 4매씩 지급되던 종이 이용권도 전용 카드로 대체 한다. 매월 1일 0시를 기준으로 4회분이 자동 충전되는 방식이다. 이용 주민은 물론, 종이 이용권과 택시 영수증을 함께 보관해왔던 택시 사업자들도 한결 편리해진다.

군 관계자는 “100원 행복택시 확대 시행이 노약자, 장애인, 학생들의 이동 편의 향상과 경제적 부담 경감에 이바지할 것”이라면서 “교통복지 1번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사업을 발굴·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장성=심재식 기자

영광군 하수관로 정비사업비 68억 원 추가 확보

생활환경 개선·수질오염 예방 박차

영광군은 영광읍 시가지 내 우수·오수관로를 분리하고 하수처리구역을 확대하여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수질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영광읍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영광읍 내 하수관로 169.8km 중 31.3km에 대하여 공사를 추진하는 중으로 공사 중 발령된 오수관로 파손 및 오점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자 2021년 7월부터 사업비 추가 확보에 나섰으며, 10개월 동안 영산강유역환경청 및 한국환경공단을 방문하고 협의하여 사업비 68억 원(국비 42억원)을 추가 확보했다.

영광군은 총사업비 1,437억 원을 투입하여 하수관로 정비사업 3건, 도시침수예방사업 1건,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4건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영광읍 시가지 침수피해 예방을 위해 도시침수예방사업을 추진하여 도로 내 우수관로 신설, 확충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하수도사업 추진 시 도로를 굽착해야되는 사업의 특성상 군민의 불편함이 지속될 수 밖에 없는 점을 양해 부탁드린다”며, “군민 생활환경 개선 및 수질오염 예방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인 만큼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영광=서종민 기자

화순 도곡면 행정복지센터 신청사 업무 본격 개시

화순군이 7일 도곡면 행정복지센터 신청사 준공식을 열고 업무를 개시했다.

도곡면 행정복지센터 신축으로 행정 업무의 효율성, 주민의 행정서비스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2020년 8월 착공, 지난 5월 완공한 지상 2층 연면적 805㎡ 규모의 도곡면 행정복지센터 신축에 총사업비 26억 원이 투입됐다.

신청사 1층에는 행정민원실, 복지상담실 등이 위치해 있고 2층에는 다목적강당, 휴게실 등이 마련됐다.

신청사는 누리관(복지관)과 보건지소 부지에 건립돼 비좁은 민원인 주차장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주민에게 행정·복지·보건 서비스를 한 자리에서 제공할 수 있어 만족도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옛 도곡면 행정복지센터는 철거하고 기초생활거점 사업을 통해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한 멀티플렉스관, 비타민 공원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구충관 화순군수는 “행정복지센터, 복지시설인 누리관, 보건지소가 한곳에 있어 면민들이 편하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며 “도곡면민들의 숙원이었던 행정복지센터를 신축하게 꽤 기쁘다”고 밝혔다. /화순=주용현 기자

함평 제5호 치매안심마을 주민설명회·공동체회의 성료

오는 11월까지 다양한 치매프로그램 운영 예정



함평군 보건소가 지난달 26일 제5호 치매안심마을로 지정된 나산면 응수마을에서 주민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치매안심마을은 치매 환자와 가족

들이 사회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인식 개선을 통한 치매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군은 본격적인 운영에 앞서 지난 달 30일 나산면사무소에서 공공기

관, 마을대표 등 운영위원회 회의를 실시해 운영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번 사업은 만 60세 이상 마을주민, 인지저하자, 치매환자 등을 대상으로 추진된다.

군은 오는 11월까지 치매파트너 양성, 치매 안전환경 조성, 맞춤형 치매 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치매 조기발견을 위한 치매선별검사를 실시하고 주민을 대상으로 치매 인식개선 교육도 함께 병행할 방침이다.

정명희 보건소장은 “치매는 주위의 관심과 사랑이 가장 효과적인 치료 방법”이라며 “치매안심마을이 치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해소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함평=김정섭 기자

자연과 역사 품은 시간 여행

사계절이 아름다운 화순



세량지의 봄



연둔리숲정이의 여름



화순적벽의 가을



규봉암의 겨울